

광주, 한 달 간 코로나19 확진자 '0' ... 지역내 감염 철벽 방어

인구 150만 대도시 유례 없는 성과 ... 전 세계가 주목
전문가들 "민관대책위 구성·성숙한 시민의식도 한몫"

인구 15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 광주에서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에선 지난달 8일 이후 해외입국자와 접촉자를 제외하곤 지역내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섬 지역인 제주도를 제외하곤 유일하다.

방역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가 발생한 대도시 중 한 달 간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다만 아직 안심은 금물이며, 코로나19가 종료되면 세계적 유행 속에 한 달 동안 감염을 막아낸 광주의 사례를 연구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7일 광주시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선 지난 8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 전도사와 접촉한 신도 A(25)씨가 광주 15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 현재까지 지역 내 감염은 없다. 다만 이 기간 해외유입자와 관련자만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이다.

국내외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달동안 지역 내 감염 '0' 건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에선 이를 놓고 광주와 타 지역간 교류가 적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루평균 10

만명이 넘는 사람이 광주와 수도권 등 전국을 오고가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로부터도 호평을 받은 광주시의 모범적인 방역 시스템에 주목한다.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집단 감염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선제대응을 통해 감염 확률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조치 중 하나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특별지시로 신천지발 코로나19 발생 초기 타 지역과 달리 강요나 억압보다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신천지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낸 점이다. 시는 지난 2월 20일 신천지 교인 중 첫 확진자(광주 3번째)가 발생하자, 신천지 관계자를 대책 TF팀에 참여시켜 대구 교회 예배 참석 명단을 확보한 뒤 확진자 7명을 초기에 찾아내 격리조치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는 전국에서 신천지 교인수가 가장 많은 곳이었지만, 당시 골든타임 확보에 성공하면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 의료진이 광주시장과 대등한 위치에서 참여하는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점도 '신의 한수'로 꼽힌다. 3월 6일 출범과 동시에 정부 대응보다 한단계 높은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정부 지침상으론 놓칠 뻔 했던 14번째, 15번

째 확진자를 사전 격리하는 성과 등을 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같은 광주시의 대응 사례를 극찬하며 전국 대응 지침에 넣을 것을 지시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광주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도 주목하고 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눔과 연대정신으로 똘똘 뭉쳐온 DNA가 이번에도 그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도 부족한 마스크를 고위험자인 어르신에게 선뜻 나눠주고 면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에 나누는 정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면서 상인을 돕기 위해 음식포장 운동을 실천하는 등 어려울수록 주변을 돕는 광주시민 특유의 DNA가 '코로나19'에 맞서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지원단에서도 한 달 동안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를 막아낸 광주의 사례를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방역 행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 추후 연구해 볼 만한 사례"라고 말했다.

광주시 배강속 감염병 관리 담당은 "코로나19는 현재 이 시간 광주도심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면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광주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을 8일 앞 둔 7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인근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시민들이 단상에서 연설 중인 후보자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후보 얼굴 한번 못 보고 투표할 판"

총선 D-7

4·15 총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탓에 후보자 얼굴과 공약 등도 모르고 투표를 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각 선거 캠프들도 후보자 알리기에 애를 먹고, 전통신장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선거 명당'도 한정돼 있다보니 경쟁 후보간 동선이 겹쳐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7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각 선거구별로 선거공보물을 발송해 6~7일 이 지역 각 가정에 배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관심이 코로나19에 쏠려 다른 이슈가 전혀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후보들이 충분히 얼굴과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야 각 선거 캠프는 후보들의 약력과 공약 등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 선거운동 거의 못해
선거공보물 꼼꼼히 확인해야

SNS 등을 통해 알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역 선거구 민주당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대면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못해 후보자의 얼굴 뿐 아니라 이름도 알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다"며 "올겨울 먹은 심정으로 후보자의 이름 대신 '기호 1번을 찍자'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면 선거가 중단되면서 문자메시지와 영상 제작 등 SNS 홍보를 강화하면서 각 캠프의 선거비 부담도 커졌다는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이 치열했던 만큼, 각종 여론조사도 많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부담이 너무 컸다"면서 "거리두기 탓도 있지만 일부 캠프는 돈이 떨어져 읍

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의 자질, 능력, 공약, 성향 등을 살필 수 있는 방송 토론회마저 주로 오전과 낮 시간대에 진행돼 관심을 끌지 못하고 내용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유력 후보는 '약점을 잡지 않겠다'며 토론회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일부 후보는 상대 후보를 흠집 내는 데에만 열을 올리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김우정 주무관은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로나19에 ... 5·18전야제 취소

40주년 행사 대부분 취소·축소

5·18전야제가 최초로 취소됐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 주요 기념 행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 취소됐다.

7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 행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9차 행사위원장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적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40주년 기념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거나 축소 또는 연기·대체한다고 밝혔다.

취소되는 기념행사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인 5·18 전야제와 국민대회, 민주기사의 날, 청년마당, 오월 캠프촌, 동네 5·18 등이다.

5월 관련 기본 행사인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공동 주최의 추모제와 부활제 등 행사는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다. 문화예술행사는 매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올해 말로 연기하거나 대체해서 진행되는 방식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축소·연기 됐지만, 5·18 행사위는 5·18진상규명과 책임

자 처벌, 정선계승, 코로나 19 위기극복 국내외 연대, 전국화와 세계화 모색 등 대안적인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오월 대동 정신으로 코로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나눔 행사 등을 개발해 5·18의 의미와 정신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5·18 상임행사위원장은 "비록 제40주년 5·18 기념행사를 취소하고 축소 하더라도 40주년의 의미와 가치는 변함없다"며 "오월 정신으로 코로나19의 아픔을 나누고 극복하자"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Mercedes-Benz Certified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1개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국내 최초 세계적인 품질 평가기관 TÜV 검수 및 인증 완료
- 1년 / 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 / 2만km 선드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